

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

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

농촌진흥청에서는 벼 품종을 생태특성, 재배양식, 가공이용성 및 품질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, 우리 쌀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관, 밥맛, 도정수율, 주요 병해충 및 재배저항성 등 우량적 특성을 고루 갖춘 품종을 실용적 측면에서 최고품질 품종으로 분류하여 농가재배를 권하고 있다(김, 2010a).

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최고품질벼 품종들은 2016년 현재까지 모두 13품종이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. 13개 품종 중 조생종은 운광 1품종, 중생종은 고품, 하리아미, 대보, 해품 등 4품종이며 중만생종 품종은 삼광, 호품, 칠보, 진수미, 영호진미, 미품, 수광, 형 품 등 모두 8개 품종이다.

<표> 품질특성과 재배안전성이 좋은 최고품질 벼 품종

품종명	육성연도	생태형	수량성(kg/10a)	적응지역
삼광	2003	중만생	569	- 경기도 등 중부
운광	2004	조생	586	- 중북부 및 남부산간지
고품	2004	중생	548	- 경기도 등 중부
호품	2006	중만생	600	- 전남북, 경남 등 남부
칠보	2007	중만생	557	- 경남북 등 남부, 중부
하리아미	2008	중생	538	- 경기도 등 중부지역
진수미	2008	중만생	555	- 경남북 등 남부
영호진미	2009	중만생	544	- 영호남 지역
미품	2010	중만생	564	- 충남, 전남북, 경남
수광	2011	중만생	549	- 충남, 전남북, 경남북
대보	2011	중생	593	- 경기, 충북, 경남북 해안지
현품	2013	중만생	559	- 남부해안지, 평택이남 평야지
해품	2013	중생	526	- 충남이남 평야지 및 서남부해안지

우리나라에서는 품종개발 뿐 아니라 재배기술 측면에서도 품질향상을 위해 과거 단보당 11kg이었던 표준시비량을 국립식량과학원을 중심으로한 3년간 전국단위의 시험을 거쳐 9kg으로 낮추어 완전미수량을 향상시켰으며 8개 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시험에서 중만생종 쌀 품질향상 및 식미증진을 위한 최적 등숙기온은 출수기부터 30일간 평균기온이 22~23℃였으며 현미천립중과 식미치가 최고였음을 밝혀내었다.(Choi et al., 2011)

정 등(2015)은 강원도 지역에서 중만생종 품종의 쌀수량과 품질 특성을 비교한 결과 완전미율 등의 품질에 관여하는 특성이 품종과 지역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. 또 Oh 등(1989)에 의하면 도정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현비율은 출수 후 등숙기의 적산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814~930℃사이에 도달하면 이후 적산온도가 증가하여도 증가가 미미하다고 하였다는 보고로 볼 때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에 따라 도정수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어 기후와 토양환경 등에 의하여 지역별로 적정품종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최근 쌀